1. **적절한 ‘간접 존대’를 쓰자**

다음과 같은 대화 예시를 보시죠

**손님: 김 사원 우리 와이프가 새로 넥타이 하나 사줬는데 어떤 거 같나?**

**직원: 아유 부장님 넥타이가 정말 멋있으십니다.**

이처럼 ‘간접 존대’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 같이 주어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통해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대화 예시를 보시죠

**손님: 여기 있는 옷 사이즈 한 치수 큰 거 있나요?**

**직원: 말씀하신 옷 재고가 없으십니다.**

여기서의 옷의 재고는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옷 재고가 없습니다’와 같이 옷 재고를 높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 **예외적인 높임 표현을 조심하자**

다음 예시를 보시죠

**직원: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전화해 주세요**

잘못된 표현이 없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직원의 발화 안에는 잘못된 높임 표현이 존재 합니다. 바로 “계시다”입니다. “있다”를 높이면 ‘계시다’가 됩니다. 하지만 “있다”란 말은 원래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만 ‘계시다’로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소유를 뜻할 때에는 ‘계시다’ 보다는 ‘있으시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1. **잘못된 “-겠”표현을 자제하자**

다음 예시를 봅시다

**사회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높임 표현이 틀린 것일까요? 바로 ‘바라겠습니다’입니다. 여기서 ‘-겠’ 은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높임 표현입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처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회자의 발화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즉 ‘바라겠습니다’를 ‘바랍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한 높임 표현이 됩니다.

1. **잘못된 “양해”표현을 자제하자**

다음 예시를 봅시다

**사회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길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란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해해 주기를 바라는 쪽에서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강요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높임 표현이 됩니다.

* end